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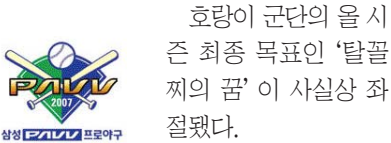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호랑이 군단 탈꼴찌 실패

KIA, 한화에 1-8 대패
최희섭 7호 홈런 빛바래



호랑이 군단의 을 시즌 최종 목표인 '탈꼴찌의 꿈'이 사실상 좌절됐다.

KIA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열린 2007 프로야구 한화전서 1-8로 대패했다. 이로써 50승1무71패를 기록한 KIA는 이날 삼성전서 승리한 현대와의 승차가 3게임차로 벌어졌다.

앞으로 4개팀을 남겨놓은 KIA로선 7위 현대를 따라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삼성 양준혁과 치열한 타격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KIA 이현곤은 이날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타율이 0.336(중전 0.339)로 떨어졌고, 10년 연속 3할타에 도전중인 '스나이퍼' 장성호도 3타수 무안타의 빈타에 허덕이며 0.284(중전 0.286)를 기록, 3할타 달성에 직진호가 커졌다.

KIA는 지난달 28일 국내프로야구 데뷔 이후 첫 연타석 홈런을 터트린 최희섭이 4회 125m짜리 솔로포(시즌 7호)를 쏘아올린 게 그나마 위안이 됐다.

KIA는 전날 열린 한화전에선 9-2로 대승했다.

이현곤의 4타수 2안타 2타점 맹타를 앞세운 KIA타선은 이날 장단 12안타를 터트리며 을 시즌 KIA전 5경기서 4승을 거둔 한화 선발 최영필을 잡았다.

KIA 투기 양현종은 을 시즌 6번째이자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2안타 1실점으로 막아 프로 데뷔 첫 승 사냥에 성공했다.

한편 국내프로야구의 매캐탑 SK 와이번스는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냈다.

김성근 감독이 이끈 SK는 지난달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전서 7-2로 승리, 70승5무46패, 승률 0.603을 기록하며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페넌트레이스 1위를 확정했다. 2000년 팀 창단 이후 처음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것.

SK는 지난 2003년 정규리그 4위를 차지한 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과 KIA를 잇따라 격파하고 한국시리즈에 올랐지만 현대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승4패로 패해 8개 구단 중 유일하게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첫 10승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형 핵잠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올해 마지막 출격에서 개인 첫 시즌 10승 고지에 올랐다.

김병현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뉴욕의 셰이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방문 경기에 선발투수로 등판, 5이닝 동안 탈삼진 2개를 곁들이며 8안타, 4실점(3자책점)으로 막아 7-4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10승(8패)째로 1999년 바리그 데뷔 후 첫 두자리수 승수 달성에 성공했다. 평균자책점도 6.11에서 6.08로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애리조나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로 동지를 옮기며 선발과 구원을 오간 2003년 9승(10패16세이브)이 시즌 최다승이었다.

한국의 투수로는 1997~2001년과 2005년의 박찬호(34·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10승 달성은 김병현이 을 시즌 플로리다에서 애리조나로 옮긴 지 22일 만인 지난달 2일 플로리다로 복귀하는 등 마음 고생을 겪은 끝에 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D-7

체전 100배 즐기기

<1> 손님맞이 준비 끝

볼거리·먹거리 풍성...“어서 오세요”

2007 광주전국체전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8~14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시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질 '제88회 전국체육대회'는 '시민체전' '문화예술체전' '빛의 체전' '민주 인권평화체전'으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손님 맞이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마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문화수도' '민주인권도시' 등 광주의 위상과 성숙한 일등시민 의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88회 전국체육대회 100배 즐기기' 시리즈를 6회 게재한다.

곡 #무등 1187'로 결정됐으며 지역 대표적 전락산업인 광(光)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연출된다.

그동안 군부위주의 연출방식에서 탈피, 체전사상 처음으로 88m 초대형 스크린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기법과 영상 등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특히 예술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거리마술과 마임, 피에로 등 거리퍼포먼스를 하루 4~10차례 열고, 대형 붓글씨 쓰기와 건강 즐기기 대회·길거리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매일 펼쳐져 체전기간 내내 즐거움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간에는 남사당 공연과 시립관현악단, 교향악단 공연 등이 관객을 손짓하며 '화려한 휴가' 등 광주와 전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 상영도 준비하고 있다.

성화는 기존체화지인 경기 강화도 마니산, 광주 무등산과 국립 5·18 묘지에서 동시 채화된 뒤 오는 10일 시청광장에서 합화(合火)돼 민주 성지와 민주평화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선수단 숙소는 전국체전 동안 사용할 숙박업소 552개소를 확보해 경기장 인근의 시설이 양호한 업소를 대상으로 각 시·도 선수단 숙소 배정을 마쳤다.

또 광주시는 17만명의 '시민 지원단'과 3천여 자원봉사자를 운영, 시민체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경기장 개·보수, 선수단 숙소 배정 등 모두 완료

시민지원단 17만명·자원봉사 3천명의 '시민체전'

디자인비엔날레·공연예술제 등과 연계 '문화체전'



최근 완공된 광주시 서구 염주동 다목적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전국체전 기간 중 핸드볼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대회 종료후에는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사용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테니스 여왕' 비너스, 한복도 어울리네

한솔코리아 오픈 우승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세계랭킹 9위·미국)가 총상금 14만5천달러가 걸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07 한솔코리아오픈 정상에 올라, 개인 통산 36번째 단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톱시드 윌리엄스는 지난달 30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 센터코트에서 벌어진 결승에서 4번 시드를 받은 '알팔스타' 마리아 키리렌코(29위·러시아)를 2시간21분 만에 2-1(6-3 1-6 6-4)로 힘겹게 따돌리고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솔오픈 여왕에 올랐다.

2년 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별코트에서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4위·러시아)와 이벤트 경기 현대카드 슈퍼매치를 치러 2-0(6-4 6-4)으로 승리했던 윌리엄스는 한국에서 참가한 첫 공식 경기인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우승, 서울과 좋은 기억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최고 권위 메이저대회 윈블던을 제패한 윌리엄스는 이로써 2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모건 키건 챔피언십이후 시즌 두 번째 투어 타이틀을 안았다.

상금 2만1천140달러와 투어 포인트 115점을 따낸 윌리엄스는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PTT 방콕 오픈에서 우승하면 1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소니 에릭슨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다.

결승까지 4경기를 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고 올라온 두 선수는 수준급 기량을 주고받으며 시종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지난달 30일 한솔코리아 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부 단식에서 우승한 미국의 비너스 윌리엄스가 한복을 입고 우승트로피인 고려청자를 들고 환호하는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 한솔코리아 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미국의 비너스 윌리엄스가 상대 마리아 키리렌코의 공을 받아 내고 있다.

/연합뉴스



게브르셀라시에 베를린대회서 마라톤 세계新 2시간4분26초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34)가 2시간4분26초로 마라톤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게브르셀라시에의 지난달 30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 코스에서 열린 2007 베를린마라톤 남자부 풀코스 레이스에서 2시간4분26초에 42.195km를 주파해 2003년 9월28일 폴 터갓(캐나다)이 같은 대회에서 세웠던 종전 세계기록(2시간4분55초)을 4년 만에 29초 앞당겼다.

육상 장거리에서 무려 22차례 세계기록을 갈아치워 '트랙의 신화'로 불려온 게브르셀라시에의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트랙에서 마라톤으로 전향한 뒤 세계기록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활주로로 거론돼왔다.

게브르셀라시에의 이상적인 기온에서 출발했고 끝난 시점에 기온이 16°C 정도로 올라 최상의 조건 속에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평탄한 기획 코스인 베를린마라톤에서는 사상 세 번째이자 두 번 연속 세계기록이 탄생했다.

스피드와 지구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구상 최고의 러너임을 입증한 게브르셀라시에의 10km 구간 기록이 터갓의 종전 세계기록보다 32초나 빨라 세계 신기록 수립을 예고했다.

중반 레이스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탄력을 붙여온 게브르셀라시에의 1시간2분 29초에 반환점을 돌아 터갓의 기록을 30초 넘게 앞섰고 최대 고비인 30km에서 다섯 명의 페이스 메이커 중 마지막 두 명이 떨어져 나갔지만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마라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최경주 사흘째 승전고 못올려

대륙대항 프레지던츠 골프

대륙대항전 프레지던츠골프대회 출전한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사흘째도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최경주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몬트리올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 포볼 경기에 US오픈 챔피언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와 짝을 이뤄 출전했지만 스튜어트 싱크와 짐 퓨릭에 1홀차로 졌다.

닉 오현(호주)과 함께 1라운드 포삼 경기에 출전했으나 타이거 우즈(미국)와 찰스 하웰3세에게 무릎을 꿇는데 이어 아담 스콧(호주)과 호흡을 맞춘 2라운드 포볼 경기에서도 스티브 스트리커, 스콧 버틀랜드에게 승점을 헌납했던 최경주는 이날 승점 2점을 올릴 기회를 허망하게 날렸다.

'골프 여제' 오초아

상금 300만불 돌파 눈앞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시즌 상금 300만 달러 돌파를 예약했다.

오초아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의 RJT골프프레이미어 골프장(파72·6천63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나비스타LPGA클래식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총상금 130만달러인 이번 대회에서 우승 상금 19만5천달러를 보태면 오초아는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넘는 LPGA 선수가 된다.

오초아가 을 시즌 벌어들인 상금은 289만 1천590달러다. 1, 2라운드 선두였던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미국)는 1오버파 73타로 부진, 오초아에 1타 뒤진 2위(12언더파 204타)로 내려앉았다.

전날 공동6위까지 올라갔던 최혜정(23·카스코)은 2타를 잃어 이정연(28), 김영(27) 등과 함께 공동14위(4언더파 212타)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